

## 미분화 갑상선암: 치료적 딜레마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,\* 병리학교실\*\*

서진학\* · 정용운 · 조남훈\*\* · 박정수

**서론:** 미분화 갑상선암은 다양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극히 불량한 암종으로 알려져 있다. 저자들은 미분화 갑상선암의 치료성적을 분석하여 향후 치료에 도움을 얻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.

**대상 및 방법:** 1977년부터 2000년까지 경험한 미분화 갑상선암 41예(1.9%)의 임상양상, 종양의 크기, 병변의 진행정도, 원격전이 여부, 병리학적 소견, 사망원인에 대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. 치료방법에 따라 5개의 군(1군: 조직생검만 시행, 2군: 조직생검, 항암약물치료 및 방사선치료 시행, 3군: 고식적 절제만 시행, 4군: 고식적 절제, 항암약물치료 및 방사선치료 시행, 5군: 근치적 절제, 항암약물치료 및 방사선치료 시행)으로 나누어 치료성적을 분석하였다.

**결과:** 평균연령은 63.1세(19~83세)였고, 40예에서 급격히 성장하는 전경부 종괴를 호소하였으며, 종괴의 평균

크기는 9.1cm(2.0~20.0cm)이었다. 19예에서 원격전이가 있었으며, 수술이 시행된 25예 중 22예(91.6%)에서 피막외 침윤이 있었다. 평균 생존기간은 4.0개월(1.0~21.0개월)이었고, 치료 방법에 따른 생존기간은 1군(n=9); 1.9개월(1.0~6.0개월), 2군(n=7); 3.2개월(2.0~7.0개월), 3군(n=5); 3.0개월(1.0~5.0개월), 4군(n=13); 3.3개월(2.0~9.0개월), 5군(n=7); 8.7개월(5.0~21.0개월)이었다. 사망원인으로는 종괴에 의한 기도폐색(n=29), 폐전이에 의한 호흡 부전(n=9), 기타 다발성 원격전이(n=3)의 순이었다.

**결론:** 본 연구결과에서 비록 적극적인 치료인 근치적 절제, 항암약물 및 방사선치료가 시행된 경우에 생존기간 약간 연장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미분화 갑상선암의 치료방법은 그 치료효과가 매우 미미하므로, 유전자 치료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치료방법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.